

■ ■ ■ 수석합격기

[2014년(제32회) 법원행시 수석합격]

다른 사람들 보다
한 걸음만 더 하자



최 송 이

- 부명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대 졸업
- 2014년(제32회) 법원행시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제32기 법원행정고시 수석을 하게 된 최송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 떨었던 게 불과 2달 전인데 제가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다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험 모드에 돌입하셨을 텐데,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이나 사법고시와의 다른 점, 그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다라는 점 등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적어 보겠습니다.

II. 수험생활

1. 2007년 고시 생활의 시작

23살, 사법고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 당시 의욕도 앞섰고, 그동안 버락치기형 공부를 해왔던 터라 시간과 체력 분배를 하지 못해 막판 한 달에는 집중을 못해 실패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기적으로 보아 1,2,3회독 별로 기간제한을 두어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던 저는 모교인 건국대학교 고시기숙사 일우헌

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녀회’라는 귀한 동지들과 소중한 사람도 만나게 되어 힘든 시기를 함께 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라는 말도 맞지만, 많이 지쳐 정신력 싸움이 되어버리는 시험 막바지에 “우리 끝까지 힘내자. 다 같이 붙자. 너는 할 수 있어”하고 서로 위로하고 밀어주는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 공부할 때 보다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인원수 감소로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불안했던 수험생활에 있어 일우현과 장교식 교수님의 응원, 동지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끝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2. 2010년 제52회 사법고시 1차 합격과 수험생활의 중단

마지막 민법시간 펜을 내려놓으며 ‘아.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내가 살면서 무언가에 다시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 부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귀중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1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공부를 하던 중 어머니가 작은 수술 때문에 입원을 하실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수술 전 날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리나케 강릉으로 내려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제 화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정작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찾아왔고, ‘이 길에 끝에 내가 과연 행복할 까’에 대해 크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부턴가 합격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가족, 한번뿐인 20대 청춘을 이곳에 바치고 있는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여자로서 다른 친구들과처럼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과 놀 나이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마 수험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일 겁니다. 결국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던 저는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중단하고 잠시 취업을 준비하며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서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제가 법조인의 길을 얼마나 열망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방황했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잠시 그 곳에서 떨어

져 있던 시간이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2012년 계속된 실패, 심진아웃

위에 제52회 사법시험 2차에 실패한 후, 2012년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때 법원행시에 대해 알게 되어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하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 본 법원행시도 1문제 차이로 탈락이라는 쓴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계속된 실패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함께 공부했던 친구 셋 중 두 명은 합격하고, 혼자 남아 공부하며 많이 외롭고 슬펐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공부도 힘들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는데 부족한 사람 인걸까, 나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지금 수험공부를 하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일 년에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과 유혹, 나태해짐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무언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고, 일산에 작은 방을 구해 스스로를 고립시

키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단 하나 '다른 사람들 보다 한 걸음만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쳤고, 영광스럽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III. 체력과 공부시간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니라 시험 막바지에는 체력이 부족해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결국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 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정해진 시간내 하루 분량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줄여 밥을 먹으며 기출이나 최신판례를 보았고, 기본서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카운트다운을 해 놓고 집중해 끝내고, 12시30분부터 5시까지 사례집보기 등과 같이 많은 시간을 찍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IV. 공부 방법

1. 제1차시험 공부방법

기본적으로 사법시험과 달리 학

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시험이 나오다 보니 판례를 반복적으로 보는데 집중하였습니다(특히 각 과목당 3년 치 최신판례를 따로 본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판례나 불의타보다는 기본적인 판례와 중요한 판례 위주로 나오므로 반복학습을 통해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제 대비는 기출문제집인 법행바이블을 3~4번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틀리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그 부분들만 카드처럼 오려서 자기 전에 하나씩 보며 양을 줄여나가던 것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최근 시험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해의 변호사시험 객관식이나 사법시험 문제를 풀어본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2시간 내에 헌, 민, 형을 한 번에 풀어야 하는데 최근 민법 형법의 경우 '옳은 것은 몇 개인가'와 같이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문제가 많으므로(2013년에도 이런 문제로 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2014년 기출에 이런 문제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민법, 형법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해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 시험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두고 진짜 시험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제2차시험 공부방법

우선 답안지양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법시험 답안지와는 달리 15장으로 된 법무사 답안지처럼 넘기는 연습장 같은 답안지를 나눠줍니다. 채점위원들이 보시기 편하게 대부분 앞장에만 답안을 서술하고 1.1. (1) 등 상황에 따라 목차마다 한 칸씩 띄어 보기 좋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과목당 10~13장을 씁니다.

1차 합격 발표 후 시험 때 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보았던 책들과 사례집을 사시를 준비하던 때와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초시를 보고 나오면서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접근 관점도 시험 문제 형식도 '사법시험과 너무 다르다'였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물어보는 민사례 통합형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고, 행정법의 경우 사례 형식이 아닌 단문형식의 개념을 묻는 문제 4개만 크게 나와 당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에 대해 쓰시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 쓰시오'와 같은 문제가 각 30점내지 50점으로 나옵니다.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민법의 경우 기본서는 예전에 보던 박승수의 기본서는 그

대로 봤으나, 사례집은 사법시험 대비 비용이 아닌 윤동환님의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대비 민법사례집을 보았습니다. 당해 사례집에는 사법연수원 문제도 틈틈이 실려 있어 좀 더 법원행시에 적합한 사례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민사례 문제 형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김남훈님의 푸에타 문제집과 강의가 이와 비슷하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 건물인도소송, 임대차 등 중점 논점들만 모아 민사례 통합형식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례문제의 경우 사법고시와 비슷하나, 주로 다수당사자소송 부분이나 증거부분, 소제기 부분에서의 자백간주, 무변론승소판결과 같이 법원사무관이 하는 일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단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문 예를 들자면 ‘장래이행의 소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과 같이 나오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만의 단문 답안형식을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연구고사회에서 출판한 주관식기출문제집에 기출형식을 파악하면서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판례를 시험 한 두 달 전까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기출에도 2014년 상반기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 사례문제 일부로 나왔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행정법 역시 위에 주관식 기출문제집으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류준세님의 워크북 기본서 한 권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만의 답안지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이나 입법론이 제기되는 부분들과 최근 개정된 법들과 취지(개정법안의 경우 11월 시험 2달 전 까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체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행정 분야의 변화되는 흐름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법 역시 시험 한 두 달 전까지 최근판례를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2차에도 2014년에 상반기 이후 나온 판례가 사례 일부와 관련되어 기출되었습니다.

형법은 사기, 횡령, 배임, 특수절도나 준강도, 공동정범, 뇌물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자주 기출 된다고 분석되어 좀 더 비중을 두어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재상님의 기본서를 기반으로 판례집을 따로 보면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판례 문구를 충실히 표현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사례집은 한권을 받

복적으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서술하시오 (50점)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빈도가 높은 부분은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유예가 없어지면서 1차 시험 후 2차 준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요약하자면 ① 우선 법조고시연구회의 주관식 기출문제집을 통해 다른 기출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중요 ★), ②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민사례 통합형식 문제를 푸는 연습이 가능한 사례집을 보고, 다른 과목은 기본사례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③ 단문형식 문제의 점수도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풍부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하고, ④ 판례는 최근 1~2년 치를 따로 보는 게 어렵다면 대법원사이트에 신청하면 판례공보를 한 달에 한 번씩 등 메일로 보내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눈으로라도 숙지하고, 추가 득점을 위해 입법론이나 개정안 관련 부분은 따로 표시 해두어 실무상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면접

면접의 경우 예전과 달리 강화되

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원행사의 면접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저도 곤란했었는데, 합격하신 선배님이 조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차합격 하신 후 수험생 분들도 정보 부족으로 힘드실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집단면접의 경우 5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모두 함께 면접을 시작합니다. 법 관련 주제와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문제나 공직관련 문제, 최근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점들을 주제로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따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합격 발표 후 면접 때까지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나의 의견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뉴스의 ‘이슈’공간에는 최근 시사적인 문제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있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면접스터디를 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수험생 분들은 면접에 익숙하지 않으므로(저 역시 그랬습니다), 발표 후 함께 면접스터디를 하며 주제를 같이 모으고 연습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이므로 적극적인 자세와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도 경청하고, 중간 중간

필기하는 자세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면접의 경우 각 조당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데 면접의 기본질문들을 뽑아 입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보며, 말의 속도, 자세, 매끄럽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3명씩 한 조로 들어가 개인면접을 봤는데, 인성관련 질문은 2차 합격 발표 후 제출하게 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토대로 물어보시므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적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범법식 관련 질문도 하시므로 기본 개념들은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공탁에 대해 설명하시오’였습니다. 저희 조가 공통으로 받은 질문은 “용통성과 원칙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하느냐”이었습니다.

IV. 마치며

‘그대. 친구들은 승승장구 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좌절하는가? 잊지 말라.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소 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어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개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

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가 되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한 구절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그 길에 끝에 반드시 이루어 돼 있다고 믿습니다. 시작이 다름 뿐 언젠가는 바라던 그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저 역시 긴 수험생활을 겪었고, 지금도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누구보다 압니다. 기약 없는 싸움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간절함이 큰 만큼 언젠간 꼭 영광의 날이 올 겁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던 길에 들어선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법의 구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발걸음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는데 기여하는 법원사무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복이 많습니다. 서툰 저인데 응원해주고 아껴준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나의 18년 지기반쪽들 지성아, 하영아, 상미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내 친구들, 너희는 친구가 아닌 내가 족들과 같아. 매일 붙어 다녔던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언제

나 보고 싶고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사랑해. 그리고 내 합격 날 태어난 복덩이 지성이 아들 정원아 이모가 많이 사랑해,,

나의 베프 송윤 변호사.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법조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하면서 같이 공부할 때 했던 많은 이야기들, 꿈들 잊지 말고 멋있게 살자.

우리 부녀회 서경언니, 지나, 솔이, 소정이, 하연이, 수혜, 은민아. 사랑하는 내 동생들. 힘든 고시 생활에서 너희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2015년 올해 모두 꼭 빛을 발하길(다 합격할 거야!! 서경언니와 소정이 더 멋진 변호사가 되길).

일우현에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도은오빠, 지현오빠, 진영오빠 고맙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과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나의 스승님 장교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올해 멋진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은희언니, 은성오빠, 기철이, 충용이, 경희야.

자랑스럽고 너무 기뻐. 합격 너무 너무 축하해^^

마지막으로 우리 딸바보 아빠. 매년 아빠에게 갈 때마다 다음번엔 좋은 소식으로 오겠다고 하고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항상 죄송했는데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가요. 하늘에서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언제나 사랑해요. 힘드셨을 텐데 묵묵히 그래도 네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며 기다려준 엄마제가 많이 효도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믿고 응원해준 나의 든든한 나무 종취오빠. 고마워 우리 지금처럼 아끼며 사랑하자.

이 글이 단 한사람의 수험생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간절했던 수험생활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법원사무관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